

# 사순절 묵상집



## 사랑

베로니카 캐넌 목사

누가복음 1:26-38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려깊게 배려하고 사랑에서 우러나온 예상치 못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성탄절에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휴대전화였습니다. 당시 교내 충격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애정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상시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사주었던 것입니다.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순간 아이들과 연락하고 빨리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휴대전화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 전부였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계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구세주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왜 자신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랑의 선물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받은 선물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 묵상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 기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는 예상치 못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